

# 딜리팀 최종 보고서



\* KB 국민은행

Ra  nAtti

# 목차

1. 월별 일정 소개

2. 테라 산타 마을 소개

3. 아띠 클라씨

- 음악 수업
- 미술 수업
- 영어 수업
- 몸놀이 수업
- 청년 영어 수업
- 종이 접기 수업

4. 350 ppm

5. 홈스테이

6. 개인 소감



### 1. 3월 일정

- 떼뚱어 교육 및 수업 보조

### 2. 4월 일정

- 아띠클라쎄 시작
- 청년 영어 수업 시작

### 3. 5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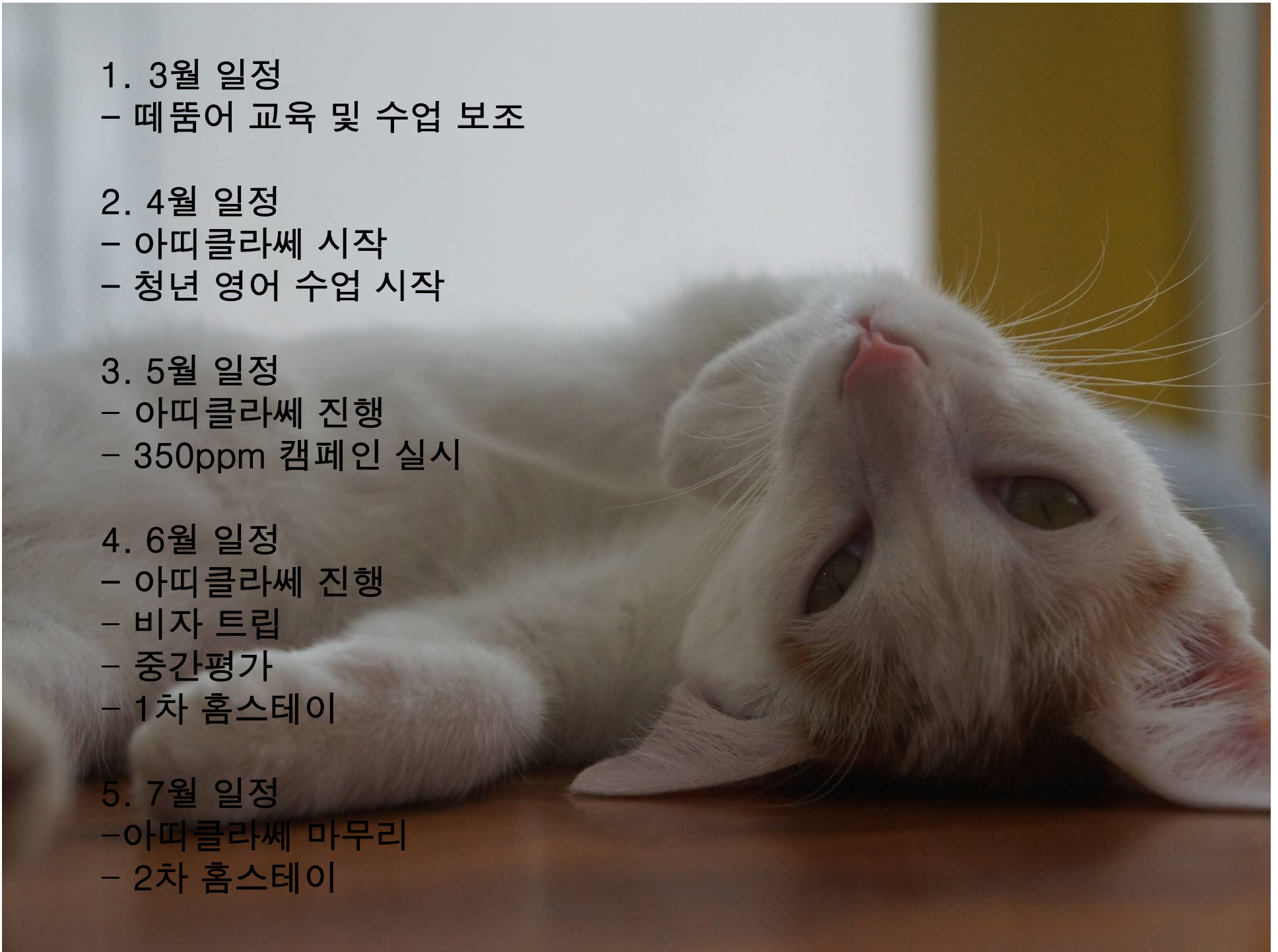
- 아띠클라쎄 진행
- 350ppm 캠페인 실시

### 4. 6월 일정

- 아띠클라쎄 진행
- 비자 트립
- 중간평가
- 1차 홈스테이

### 5. 7월 일정

- 아띠클라쎄 마무리
- 2차 홈스테이



테라산타 마을 소개



## 테라산타 마을 소개



- 8~13기 동안 딜리팀의 주요 활동 지역.
- 수도 딜리의 외곽에 위치해 있고 바다와 인접.
- 마을 분위기는 중심가와 달리 도시적이지 않고 소박한 곳.
- 주민들 중 몇몇은 지방에서 올라와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 주민들 모두 공식어인 떼똌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 티모르 YMCA



•티모르 Y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Y로 규모가 매우 작다. (현지 간사님, 총장님, 그리고 축구부 코치 등 봉사자 까지 합쳐 7명 남짓.)

•라온아띠의 아띠 클라쎄와 YMCA 축구단, 주말 미사 프로그램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아띠클라쎄는 센터가 위치한 테라산타를 위주로, 축구단은 테라산타 및 딜리 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래 센터 앞에 넓은 운동장이 있어 축구부의 훈련 및 아띠 클라쎄 체육 활동 등을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번 기수부터 운동장에 담장 벽이 생기며 원래 센터가 쓰던 운동장은 없어진 상태. 따라서 축구부 훈련은 현재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공용 운동장과 마을 밖 멀리 떨어진 곳의 운동장을 쓰고 있다.



아띠 클라씨

## 아띠 클라씨 - 음악(어린이)



1. 처음 음악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때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는 수업을 준비함
2. 노래는 악어떼, 텔레비전, 작은 동물원, 작은 별 등 한국의 노래를 번역함
3. 아이들이 아는 떼똥어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짐
4. 춤은 한국의 빠빠빠를 1분 정도 편집해서 알려줌



## 아띠 클라쎄 - 음악(어린이)



1. 5월에 센터에 오전에 아이들이 없었고, 센터가 아닌 다른지역 및 남자 아이들과 수업하기를 원함

2. 수업 방식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오전 수업에 돌아다니며 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아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부푼 꿈을 가지고 직접 가사집을 목에 걸 수 있게 제작 후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아띠 클라쎄를 길에서 혹은 아이들이 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실시하였다.

4. 6월 7월이 되어서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때뚝 동요를 배워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가졌다.

## 아띠 클라씨 - 음악(청소년)



1. 4월 한 달 동안은 리코더를 알려주었다. 리코더를 배우는 데 음표를 알지는 못하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적고 알려주었다.
2. 생각보다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거의 따라오지를 못하고 편차가 컸던 점이 있다.
3. 5월이 되어서는 리코더 수업 대신에 연극을 위해서 연극 수업을 진행하였고 대본을 쓰고, 말하기 연습을하고 무대에서 보여줄 연극을 연습하였다.
4. 6월 이후부터는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외국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자유롭게 춤을 추었다.

## 아띠 클라씨 - 미술(청소년)

평균 참여 인원 : 6명

연령 : 11~15세

남녀 비율 : 남자 청소년은 매우 드물게 참여

12기 피드백을 듣고 청소년의 참여가 적을까봐 걱정했으나 다행히도 매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많은 날은 10명 이상 참여하기도 했다.

통제와 물품 관리가 수월해 크레파스 외에도 사인펜, 색연필, 색종이, 파스텔 등 다양한 물품의 사용이 가능했고,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매번 수업 준비와 진행이 수월했다.

센터의 물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기부 받은 것인데, 모두 한국어가 적혀 있어 사용할 때마다 아이들이 티모르에도 이런 게 있는지 확인했다.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사인펜, 색연필, 물감 등은 티모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계속 한국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센터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든 물품을(파스텔, 물감 등) 굳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 지에 대한 고민도 했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몇 차례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다.

청소년 수업의 아쉬운 점은 남자 청소년의 수가 극히 적었다는 것인데, 11살 정도의 남자 아이들이 많았으나 모두 상당히 개구쟁이라 다양한 물품을 사용하고 수업 내용이 다소 어려운 청소년 수업 대신 어린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 아띠 클라씨 - 미술(어린이)

평균 참여 인원 : 30명

연령 : 4~10세

남녀 비율 : 3:7

모든 기수가 진행한 수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익숙하게 느끼는 수업이다.

Beti가 칠판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이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집, 동물, 과일, 사람, 캐릭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습이라는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파스텔, 물감, 색종이 등을 사용해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으나 몇 차례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 사람당 한 과목의 수업을 맡다 보니 홀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현지 스태프(메리)의 도움이 적절하지 못했다.

센터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필요한 물품이 생겨도 구입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고, Beti가 직접 구입하거나 준비했다. 한국에서 기부한 물품 중 일부는(파스텔,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등) 티모르엔 없거나 드문 물품이라 스태프가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센터 주 참여 인원인 어린 아이들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해 사용을 못 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지우개는 얼마 없어 30명의 인원이 2개로 나눠 쓰고, 연필과 크레파스는 여유분이(새 제품)이 많지만 아이들 모두가 새 제품을 원하고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거의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



## 미술 작품

### 어린이



### 청소년



## 아띠 클라씨 - 영어(어린이)



- 수업 대상  
4~10세의 테라산타 아이들
- 수업 목적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돈워주기.  
성취도와 상관없이 영어를 접하는 경험 제공이 주 목적.
- 수업 내용  
알파벳을 막 익힌 어린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단어 위주의 영어 수업을 진행.  
알파벳 카트 놀이, 영어 단어 그림 카드, 색칠 공부, 간단한 챗트 등을 통해 흥미유도.
- 수업 참여  
비교적 많은 인원이 꾸준히 참여.  
남녀 참여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점차 남자 아이들의 안정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 아띠 클라씨 - 영어(청소년)



- 수업 대상  
11-14세의 테라산타 아이들

- 수업 목적  
영어에 대한 친밀감 상승  
간단한 회화 학습

- 수업 내용  
문장 위주의 말하기 수업  
발음 및 단어 학습  
게임, 챗트를 수업에 이용해 같이 놀 수 있도록 함.



- 수업 참여  
시수는 적었으나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았다  
수업 내용 성취도가 높은 편  
남학생의 참여가 적기는 했지만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한 두명씩 꾸준히 참여.

## 아띠 클라씨 - 몸 놀이(어린이, 청소년)

평균 참여 인원 : 6명(어린이), 3명(청소년)

연령 : 4~15세

남녀 비율 : 남자 아이들의 참여는 적음

줄넘기, 바구니에 공 던지기, 원반 던지기, 신문지 제기 차기, 페트병 볼링, 윷 놀이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놀이 수업이라 4월엔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으나 Dino가 아이들 통제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수업을 중단한 날이 많아 점차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졌다.

Ivo나 Beti가 보조 교사로 참여할 경우, 아이들이 Dino에 집중하지 않고 Ivo, Beti와 다른 몸 놀이를 하기를 원해 수업 진행이 어려웠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아이들이 장난기가 많고 산만해 통제가 어렵고, 여자 아이들이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막았고, 몇 차례 축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바구니에 공 던지기, 페트병 볼링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곧잘 해서 Dino가 없는 동안 다른 팀원들이 이를 활용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노는 시간에 공 놀이, 페트병 뚜껑 던지고 받기 등의 몸 놀이를 하기도 했다.



## 아띠 클라씨 - 종이접기

평균 참여 인원 : 40명

연령 : 4~15세

남녀 비율 : 4:6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한 수업으로 아이들이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반응이 좋았다. 티모르에선 종이접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듯해 아이들뿐 아니라 스태프들의 관심도 큰 편이다.

초반엔 어린이, 청소년 모두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어려워 해서 다섯 번 만에 완성하는 아주 쉬운 종이접기 위주로 진행했고, 후반으로 갈 수록 좀 더 어려운 종이접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왔다.

다만 오전, 오후 합쳐 7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날도 있어 색종이의 사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한때 센터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수업을 중단할 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현재는 1/2, 1/4 크기의 종으로 접을 수 있는 종이접기를 시도하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접기 수업은 계속 진행하되 종이 사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 아띠 클라씨 -청년 영어( Joven Ingles)

•개설 계기 : 테라산타 청년들은 학교 외에 여가 시간을 보낼 거리가 없고, 또 영어 및 학습의 기회도 부족하다는 현지 코디 간사님의 의견에 따라, 청년과 함께하는 라온 아띠 프로그램 개설 계획 시작

### •청년 수업 준비 과정



#### • 청년 수업 수요 설문 조사

: 영어 / 한국어 / 기타 중에서 선택  
: 각자 선택 후 이름을 써 넣어 명단을 만들었음

#### • 청년 수업 수요 설문 조사 결과

: 영어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 • 홍보 과정

: 포스터 부착 및  
설문 조사에 쓰여진 명단을 이용,  
수업 개설을 알림.

## 아띠 클라씨 - 청년 영어



- 수업 대상  
15세 이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실제 참여 인원의 나이대도 15-20대로 넓은 편.

- 수업 목적  
마을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련  
청년들의 여가 시간 활용을 도움.

- 수업 내용  
간단한 대화문을 통해 단어, 문장을 익힘  
서로 대화하는 등의 말하기 연습  
팝송 등을 이용해 수업.



- 수업 참여  
테라산타 청년들 외에 이웃 마을 및 다른 지역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음.  
꾸준한 참여 인원이 확보되어 정기적인 금요 프로그램으로 안착



350PPM campaign

## 350ppm 캠페인 - 쓰레기장 방문과 현재 테라산타 상황



쓰리게 수거장 상태



테라산타의 길의 모습



센터 앞의 모습



티모르의 쓰레기들이 한군데 모여서 태우는 장소

## 350ppm 캠페인 - 청소년 수업과 신 환경 게임



환경 교육을 실시 및 OX 퀴즈



신 환경 게임을 실시

## 350ppm 캠페인 - 청소년 미술 수업

평균 참여 인원 : 15명(어린이) / 10명(청소년)

연령 : 4~1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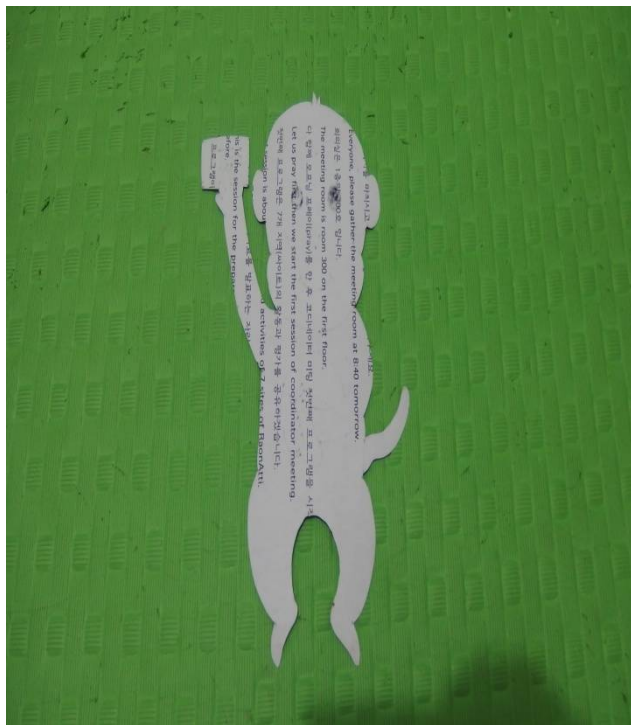
남녀 비율 : 3:7(어린이) / 남자 청소년은 매우 드물게 참여

350PPM 캠페인을 기억하는 아이가 없고,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적은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다.

총 15회 가량 수업을 진행했고, 청소년의 경우, 수업에 반복해 참여하며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생긴 것 같다. 수업의 주 내용은 재활용이었는데, 티모르엔 분리수거, 재활용이란 개념이 없어 처음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듯 했으나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색종이 등 물품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 절약하고 쓰레기 줄이기, 이면지, 신문지에 그림 그리기, 페트병으로 장난감 만들기 등을 아이들 스스로 실천 중이다)

티모르는 남녀노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흔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재활용 수업 한 차례, 깨끗한 물과 건강에 관한 수업 두 차례만 진행했다.





## 350ppm 캠페인 - 전시회

참여 인원 : 50명 가량

연령 : 아기부터 아띠클라쎄 주 참여자인 아이들, 청소년, 청년,  
부모님 몇 분까지 넓은 연령대가 참여했다.

남녀 비율 : 5:5

5월 30일 토요일, 전시회와 연극을 함께 진행했다.

전시회에선 재활용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동안  
350PPM Arte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작품을 환경에 대한 간단  
한 설명과 함께 전시했다.

며칠 간 전시해 마을 사람 누구나 구경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여  
러 번 반복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센터에 아이들 손이 닿  
지 않는 곳이 없어(아이들이 작품을 훼손하거나 가져갈 것 같아)  
하루 만에 전시를 모두 철수한 것이 아쉽다.

아이들 작품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녀 센터에 오지 않는 사람  
들도 캠페인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아이들 집에 방문  
해 부모님, 가족들에게도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단 한 차례 전시를 통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이해했을 거라 생  
각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경우, 4월부터 350PPM Arte 수업에  
참여하고, 5월 한 달은 환경에 대한 이해의 달로 정하고 Ivo와  
Beti가 진행한 모든 수업에 반복해 참여했기 때문에 이전에 비  
해는 확실히 환경에 대한 이해가 는 것 같다.

6월에도 350PPM Arte 수업은 계속해 진행했다.



## 350ppm 캠페인 - 청소년 연극

1

350 ppm 교육 직후  
2개의 연극을 준비  
열정적 참여  
(연극 2주 전)

3

Lily Alucy Atina Angel 합류  
2개의 연극을  
다시 연습  
(연극 4일 전)

5

우여 곡절 끝 연습 참가  
산만했지만 연습하는 것을  
보고 안심 함  
(연극 1일 전)

7

우디스 간사님 도착 후  
인원을 추려 급하게 연습  
2개의 연극 마무리 함  
(연극 시작)

2

아이들의 다툼, 빠침으로  
총 인원 4명이 남게 됨  
1개의 연극 연습  
(연극 1주 전)

4

새로 합류한 팀 전원이  
연극을 안한다고 함  
결국 설득 끝에 참가함  
(연극 2일 전)

6

Tina Fero Abuk 하기로  
한 친구들 연극 불참  
2개의 연극 모두 불가  
(연극 1시간 전)

감정 기준선

## 350ppm 캠페인 - 청소년 연극



많은 인원 참가! 열정적인 시작!



결국 남은 4명..... 하지만 그들은 착한 모범생!!



350ppm 연극 수업 시작 행복 했던 Ivo!!



유여곡절 끝 수업과 멘탈 나간 Ivo

## 350ppm 캠페인 - 청소년 연극

5



다시 열심히 연습 중인 Atina, luci, Lily!!

6



오지 않은 Afero, Atina, Leo  
대신한 Dino, Beti, mana udys



오지 않은 Abuk  
대신한 Naria

7



모두 멋있게 성공한 연극!!



마을 설문조사

# 350ppm 캠페인 - 마을 설문 조사

350ppm Marguntas

1. 당신의 집에 쓰레기 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필요하다    ②필요 없다

2. 당신의 집에 쓰레기 통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나요?

①집에서 태운다  
②집 근처에 버린다  
③마을 쓰레기장에 버린다

4. 사람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나요? ( ~~한~~ 알루미늄 )

①그냥 버린다  
②한 번 더 사용한다  
③알루미늄과 캔을 판다  
④캔을 모으는 사람이 있으면 판다

5. 이 지역의 마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깨끗하다    ②깨끗하지 않다

6. 물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나요?

①식수를 산다  
②갤런을 구입한다  
③집에서 물을 사용한다  
④이웃과 함께 사용한다

7. 마을 쓰레기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좋다    ②더러워서 사용하기 싫다

8. 우리 마을의 쓰레기 관련 계획에 참여하시겠습니까?

①하겠다    ②안하겠다

9. 마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쓰세요.

|      | 1번 | 2번 | 3번 | 4번 | 합계 |    |
|------|----|----|----|----|----|----|
| 질문 1 | 3  | 9  | 9  |    | 48 |    |
| 질문 2 | 2  | 6  | 2  | 2  | 48 |    |
| 질문 3 | 6  | 3  | 3  | 9  | 48 |    |
| 질문 4 | 3  | 0  | 5  | 1  | 2  | 9  |
| 질문 5 | 3  | 8  | 1  | 0  |    | 48 |
| 질문 6 | 1  |    | 5  | 2  | 9  | 1  |
| 질문 7 | 3  | 2  | 1  | 6  |    | 48 |
| 질문 8 | 4  | 5  | 3  |    |    | 48 |

## 9번 문항에 대한 주민들의 공통적인 대답

1. 쓰레기 장에 버려야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것이다

2. 쓰레기 장 주변도 더럽고, 쓰레기를 길에 마구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더러워지며 모기, 파리 등도 많고 사람들이 아플 수 있다.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곳의 환경 그리고 쓰레기 장을 깨끗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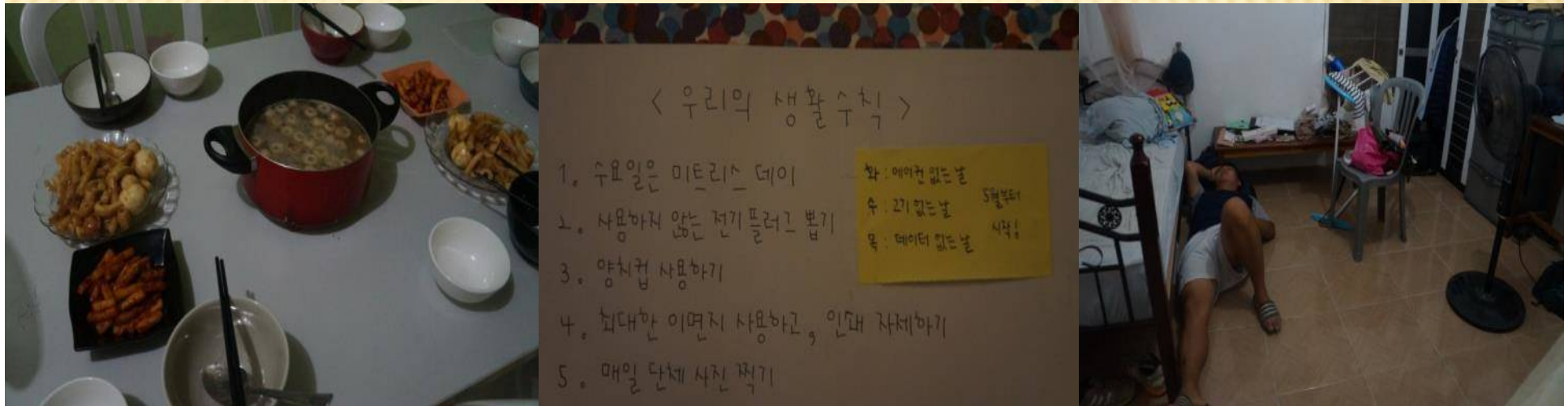
(질문 5, 질문 7)

쓰레기 장에 대부분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질문 3)

쓰레기 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반 정도가 쓰레기 통이 있지 않다. (질문 1, 질문 2)

## 350ppm 캠페인 - 숙소

숙소 캠페인 생활은 식사할 때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350ppm 캠페인입니다. 특히, 이 캠페인은 숙소에서 실천하는 캠페인이며,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350ppm 캠페인 규정을 준수하여 실천합니다.



숙소에서의 350ppm 규칙!

- 매주 화요일 : 에어컨 리스 데이
- 매주 수요일 : 미트 리스 데이
- 매주 목요일 : 데이터 리스 데이

## 홈스테이 - Ivo(김환용)



첫 번째 홈스테이 : Osi 네 집 가족  
엄마, 아빠, Osi Atitu, Abe, Angelu, Apaul, Apaul 엄마,  
Apaul 엄마

오시 집에서 생활하면서 티모르의 생활과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고 더욱더 티모르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문화, 생활방식을 알 수 있고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의 쉼터가 생겼다는 점이 좋았다. 홈스테이가 끝나고 도 자주 찾아가면서 쉬고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센터를 모르던 아이들에게 센터도 알려주고 우리와 남은 6,7월을 함께 보냈던 Osi 사촌들까지 전부다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 홈스테이 - Ivo(김환용)



첫 번째 홈스테이 : 오라시오 전 총장님 집 가족  
오라시오 총장님, 부인, 아들

총 3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티모르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을 하였다. 목사님인 총장님 부인과 함께 교회를 매일 나가면서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교회에서 행사 준비 및 필요한 일들을 그곳의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센터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를 자주 보았던 사람들이 아닌 자주 보지 못한 그냥 한 국인이 낯선 사람들과의 신선한 만남도 있었다. 다 큰 청년들이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공유하고 교외에서 하룻밤을 청년들과 춤도추고 노래도 하면서 노숙을 하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곳에 매진을 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이지만 오히려 정도 많이 들고 생각이 자주 나는 것 같다.



## 홈스테이 - Beti(이다슬)



첫 번째 홈스테이 : Rena 가족의 집  
엄마, Rena, Richa, 사촌 Herlina, 사촌 Migi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출근해 활동하던 테라산타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티모르의 문화, 테라산타의 경제 수준과 여러 상황에 대해 가까이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홈스테이를 통해 전보다 깊게 티모르와 테라산타를 이해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숙소 생활이 이곳 생활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풍요를 체감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 지치고 외로웠던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했다.

두 번째 홈스테이 : Maun Jody 친척의 집  
Aniju, Adalia, Ali, Adecy 등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0명

팀원들 서로가 위로와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갑작스레 두 번째 홈스테이를 진행했다.

피스커피에 근무하는 Maun Jody 친척의 집으로 학생들만 10명이 살고 있어 바로 옆 집에 있음에도 Maun의 집과는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아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건강과 마음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 Rena네처럼 가족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티모르의 학교, 청소년, 대학생, 직업에 관해 잠깐이나마 보고 듣고 함께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 홈스테이 - Lisa(김보연)



1차 홈스테이 : Bebi (센터 Bo'ot 수업 참여)  
- 7일간 홈스테이 했으며, 센터 일과와 홈스테이 병행.  
2차 홈스테이 : Maun Jody(피스커피 현지간사)  
- 5일간 홈스테이. 센터 휴가 시기.

홈스테이 방식 ) 우선, 딜리팀 홈스테이는 현지 코디간사님이 마을 내에 주민들과 상의한 뒤 우리에게 통보되는 방식.

집이 정해진 뒤에는 그날 오전 집을 모두 옮기고 센터 활동이 끝나는 대로 각자 집으로 들어가 홈스테이 시작.

테라산타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밤이 되면 멀리 나가지는 못했으나 가까이 있는 곳은 방문 가능.

홈스테이 소감 및 평가 )

홈스테이 후 지속적인 홈스테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팀은 아띠 클라쎄가 끝난 뒤 오전에 각자 집을 찾아가거나 한국 음식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홈스테이집과 교류하려고 했다.

홈스테이 이전에는 티모르의 의식주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적었는데 일주일이라도 겪어보니 조금 더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게 됐다.

또한, 같은 음식을 먹고 지낸다는 것에서 사람들과 더 동질감(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게인 소감